



김숙현 문화기획인쇄 대표(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장)

장애인과 함께 40년 인쇄업 외길

교육받으면 장애인도 인쇄사 근무 거뜬해

녹색 잎이 새록새록 모습을 드러내는 4월이 되면 생각나는 날이 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면 인쇄업계는 일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인쇄정보조합 회원사이기도 한 김숙현 문화기획인쇄 대표를 만나 인쇄에 대해 얘기해본다.



장애를 얻게 된 이유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김숙현 대표는 2살 때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다. 옛날에는 시골에 화롯불을 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다 혼자 기어 나와 화롯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을 다치게 되었다. 김숙현 대표는 “1950년이니깐 육이오가 한창이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래들의 놀림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적에는 체력 검사할 때 ‘턱걸이’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50~60년대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김 대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그 후 마을에 있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1년 정도 한 뒤, 17살에 서울로 올라갔다.

김숙현 대표는 “비록 왼손가락이 없긴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는 체력이 되지 않아 일거리가 많은 서울에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무작정 올라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인쇄에 발을 디디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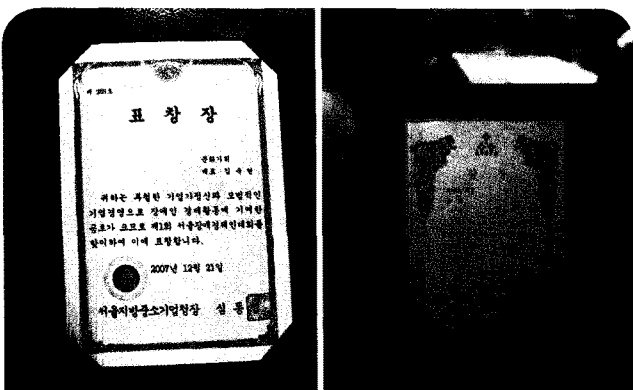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김숙현 대표는 길음동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외사촌을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쇄를 처음 접하게 된다. 김숙현 대표는 “인쇄업을 하고 계시는 외사촌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쇄 기술을 배울 때 학업의 연장이라는 생각이어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인쇄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계천에서 야간노점상으로 책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야간 노점상이라고 해서 손수레에 책을 놓고 대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무협영화가 한창 인기 있을 때라, 다행히 관련 책으로 약간의 돈을 벌어 김 대표가 스무 살 때 지금의 오류동에서 점포를 얻어 인쇄 기계를 사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쇄사에서는 주로 명함, 청첩장, 계산서, 책자, 신문 등을 만들었다.

김숙현 대표는 “지금이야 모든 것들을 ‘전자식’으로 하지만, 그때는 직접 종이에 작업하기 때문에 인쇄물의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30여명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죠. 제 생활 철학은 ‘이 세상에 죽었다 태어난 사람 같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인쇄업을 하자’입니다. 40년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하자는 신념으로 임했고, 그 결과 좋은 인쇄물이 나와서 이 일로 40년을 잘 살아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쇄업을 하면서 생계가 차츰 나아지자 김 대표는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됐고, 장애인무료급식소 ‘한울의 집’을 운영하며 매일 25명의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사)지체장애인협회 구로지회장,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사)장애인유권자연맹 구로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적극 도모해왔다.

- ▲▲ 자판을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못해 라이터를 끌고 일하지만 말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 ▲ 디자인 경리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정씨와 김숙현대표



▲ 김숙현 대표가 받은 서울 지방 중기청의 표창장과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여해 받은 금상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를 만들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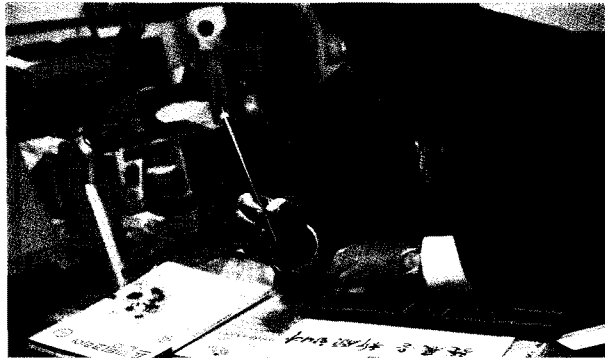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는 '인쇄문화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으로 윤택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과 문화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에 설립됐다

김숙현 대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장애인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자립을 위한 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뜻이 있는 장애인 120여 명을 회원으로 조직해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단체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에서는 1, 2급 장애인들을 규합해 인쇄기술을 양성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해 인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쇄문화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료비 3200PFA 5절 양면인쇄기, 료비 3200CD 5절 인쇄기, Elefax AP-10Ex 4절 제판기, 쓰미토모 케바우 2절 오프셋 운전기, 하시모토 GR625-P 2절 오프셋인쇄기 등이 있다.

김숙현 대표는 “다른 인쇄사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쇄를 통해 우리 장애인들은 일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쇄문화협회에는 현재 장애인 8명, 비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5명, 시각장애인이 1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명 근무하고 있다. 김숙현 대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을 대충 대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보다 더 꼼꼼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숙현 대표가 프린팅코리아의 발전을 기원하며 붓글씨를 쓰고 있다.

프린팅코리아
의
發展을 祈願합니다
2011. 3. 9 김숙현

끊임없는 자기발전이 원동력

김숙현 대표는 기존의 인쇄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상호, 로고, 마크 등에 독자적인 서체개발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꾀하고 있다. 김숙현 대표는 목공기술도 뛰어나다. 2002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인장직종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 한자리에서 30여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해왔지만 저는 매일 같은 모습이 아닌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쇄뿐 아니라 캘리그래피를 통한 차별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통해 똑같은 컴퓨터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글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인쇄사에 근무할 수 있게 되길

인쇄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일산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취업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김숙현 대표는 “비장애인들의 경우 3D라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2급 장애인들의 경우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가꿀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인쇄업계의 경우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서로 도와준다면 윈윈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인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쇄는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직장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

김숙현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향후 규모가 확대되면 더 많은 장애인의 채용과 최첨단 인쇄시설 구비는 물론, 자체 사옥을 신축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생활편의시설 등을 활성화시켜 어려운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협회를 지향해 나아갈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에 구슬땀을 흘려 온 김 회장의 노력이 하루 빨리 결실을 맺길 바란다. ☞

입남속 차장 sang@print.or.kr